

무사시즈카 공원

검객 미야모토 무사시(1584-1645)의 매장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 3 곳이 모두 구마모토 시내에 위치합니다. 그중에서도 동부 지역의 무사시즈카 공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무사시는 구마모토번의 번주 호소카와 다다토시(1586-1641)와 후계자 호소카와 미쓰나오(1619-1650)의 비호 아래, 생애 마지막 5 년을 구마모토에서 보냈습니다. 전승에 따르면 호소카와 가문에 충성을 맹세한 무사시는 사후에도 호소카와 가문을 지켜볼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 서 있는 상태로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. 호소카와 가문이 자주 왕래했을 에도(지금의 도쿄)로 향하는 옛 가도를 따라 조성된 무사시즈카 공원은 다른 두 후보지보다 호소카와 가문을 지켜보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습니다. 공원 입구에는 이곳의 상징인 두 자루의 칼을 든 무사시 동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안에는 일본 정원과 다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